

구글, 제미나이 맞춤형 광고 띄우고 네이버는 커머스 묶어 AI 구매 전환

검색, 대화형 인터페이스 전환
구글, 제미나이 광고 도입 가능성
네이버, 검색·쇼핑 등 AI 통합 연결
플랫폼 체류시간 확보가 핵심 경쟁력
광고·답변 경계 모호... 신뢰도 우려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기존 검색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빅테크들의 검색서비스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의 검색시장 변화 추세를 AI로 생성한 이미지. /Gemin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광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광고를 AI 서비스에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검색 자체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전환되면서 기존 광고·커머스 수익 구조 전반이 재편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AI 챗봇 '제미나이' 광고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뒀다.

구글의 필립 슌들러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지난달 30일 열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AI 모드에서 효과적인 광고 형식이 검증된다면 제미나이 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제미나이 광고 계획에 선을 그어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이미 구글 검색의 'AI 오버뷰' 영역에서는 광고 노출 실험이 진행 중이며, AI 검색 결과 안에 쇼핑·텍스트 광고를 삽입하는 구조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 광고 시장이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대신 AI와 대화하며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 광고 역시 검색 결과 상단 배너 형태가 아닌 '대화형 추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구글은 AI 기반 검색 서비스 'A I 모드'와 AI 오버뷰를 중심으로 광고 모델을 시험 중이다. 기존 검색 광고·쇼핑 광고·퍼포먼스 맥스 캠페인 등이 AI 응답 내부 또는 상하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AI 검색 전환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는 올해 2분기 'AI 탭' 베타 서비스를 예고하며 검색·쇼핑·플레이스·결제 등을 AI로 통합 연결하는 구조를 준비 중이다.

특히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검색 광고' 자체보다 커머스 연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사용자가 AI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품 추천, 쇼핑, 예약,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쇼핑·플레이스·페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커머스 전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 광고 노출 경쟁이 아니라 'AI 기반 구매 전환' 경쟁으로 시장 축이 이동하

고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존 검색 광고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지만, AI 시대에는 추천·대화·구매가 하나로 연결된다"며 "누가 더 오래 사용자를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I 광고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광고와 일반 답변 경계가 흐려질 경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외 연구에서는 일부 AI 모델이 기업 수익을 우선해 특정 상품을 편향적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업계는 앞으로 AI 검색 경쟁이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광고·커머스·콘텐츠 생태계를 모두 포함한 '플랫폼 전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본다. 검색창 중심 인터넷 시대가 저물고, AI 대화형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LG U+, '유독'서 OTT 결합 프로모션

VIP 멤버십고객에 4000원 할인
신규고객 티빙 할인 프로모션도

LG유플러스는 OTT 결합 상품 신규 고객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복수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고객에게는 콘텐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행사대상은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이 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VIP 멤버십고객에 4000원 할인 제공하는 'VIP콕' 혜택을 더하면 월 1만4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티빙 이용권을 12개월 동안 3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사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은 6월 30



LG유플러스 직원이 해당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까지다.

조용성 LG유플러스 제휴사업담당(상무)은 "앞으로도 OTT를 비롯해 AI, 라이프 혜택 등 통신과 결합해 고객의 생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구독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NHN KCP, 데이터 기반 가맹점 경영 지원

플랫폼 'KCP 비즈파트너' 선별
AI 매출 분석으로 의사결정 도와

NHN KCP가 6일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KCP 비즈파트너'를 출시하고 데이터 기반 가맹점 경영 지원에 나선다.

'KCP 비즈파트너'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결제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이다. 복잡해진 결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NHN KCP의 결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했다.

기존에는 가맹점주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을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 플랫폼은 이를 단일 화면으로 통합해 매출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본사는 여러 가맹점의 매출과 정산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며, 가맹점별 매출 흐름과 이력 관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기반 매출 분석 기능이 핵심이다. 단순 데이터 조회를 넘어 축적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매출 흐름까지 예측한다. 이를 활용해 재고 운영, 인력 배치, 프로모션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 기능도 포함했다. 카드 결제 기반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재방문 고객 비중과 매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어 별도 비용 없이 고객 특성을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NHN KCP 가맹점은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데이터 분석 도구 도입이 부담이었던 중소기업의 디지털 운영 환경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빛나 기자

삼성SDS, 예결원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수주

발행량·유통 규모 실시간 파악
투명 관리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삼성SDS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에 활용하는 분산원장(DLT) 기술로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DLT는 거래 내역을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는 기술이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소유권·배당 등의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다.

삼성SDS는 2024년부터 토큰증권 기능분석 컨설팅과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역량을 키워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량과 유통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총량관리시스템을 구현한다.

이 밖에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노드 운영 및 관리 체계 마련 ▲분산원장 시스템 구성 등 전반적인 IT 인프라도 함께 제공한다. 2027년 2월 구축이 목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 계좌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를 연결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리 관리 기능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SDS 이정현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토큰증권 사업 경험과 블록체인, IT 인프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대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일레븐랩스, 스폰랩스에 AI 음성 솔루션 공급

스폰랩스, 협력 통해 '팟노블' 선봬

일레븐랩스는 오디오 플랫폼 기업 스폰랩스에 AI 음성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폰랩스는 신규

오디오 소셜 서비스 '팟노블'을 선보인다. 일레븐랩스가 AI 오디오 콘텐츠 제작 기반인 음성 솔루션을 제공해 품질 경쟁력과 제작 효율을 높인게 특징이다. 스폰랩스는 제작 과정을 재설계해 라이브 오디오 중심 사업에서 스토리 기

반 오디오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했다.

앞서 스폰랩스가 국내의 TTS 솔루션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일레븐랩스의 AI 음성 기술이 문맥을 파악하고 연기에 가까운 발화를 구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기준은 문장 부호에 따른 억양 변화와 기쁨, 슬픔, 분노 등 문맥 기반 감정 표현력 등이다.

/조민선 기자

KT, 외곽지역에 LTE 시내전화 서비스 실증

도서·산간지역 통신 사각지대 해소

KT가 농어촌 등 외곽 지역에 LTE 무선망을 구축해 통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KT는 LTE 무선망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시내 전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 도입 이후 유선망을 기반으로 시내전화를 제공하던 기존의 구조에서 무선망으로 확장하는 최초 사례라는 게 KT측의 설명이다. 통신망 구축 체계가 다양화되고, 기술 방식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선망 기반 서비스는 설치, 이



KT는 '무선망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KT가 국내의 산간 오지 지역에서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위해 통신망을 구축하는 모습. /KT

동이 쉽고 자연재해 등 장애에도 강해 서비스 안전성 높다. 향후 통화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 검토하고,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